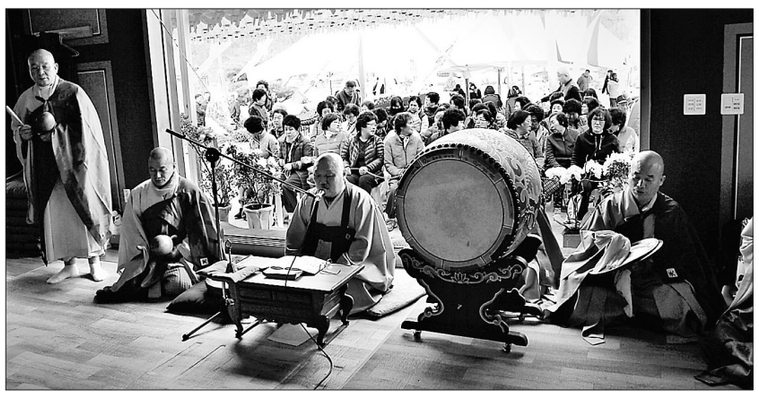

10년 만에 불사를 회향한 쌍봉사 대웅전 낙성법회서 스님들이 불교전통의식을 집전하는 모습.

대웅전 끝으로 10년 불사 회향

진안 쌍봉사, 현대식 대웅전 낙성법회 봉행

자비나눔 실천도량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대웅전을 낙성했다.

쌍봉사는 4월 1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지역 불자,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으로 2시간에 걸쳐 신중작법, 상단권공 등이 진행됐다.

도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급박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덕은 한없이 무량하다"며 "새롭게 낙성된 대웅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 반드시 성불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보경 스님은 인사말서 "오늘 불사를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불자님들의 지극한 신심과 원력 덕분"이라며 참석 대중에게 삼배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법회 후에는 대웅전 낙성을 축하하는 문화마당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중공양, 신도노래자랑 등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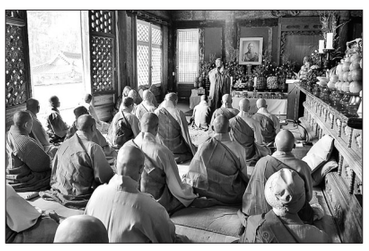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법당과 종무소, 요사를 결합해 실용성을 강조한 현대식 건물로 약 30평도 규모다. 쌍봉사는 향후 어르신 쉼터 조성 등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04년 보경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10년에 걸친 불사를 회향한 쌍봉사는 지역민들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원력에 따라 김장김치 나눔, 자비의 쌀 나눔, 연탄 나눔 등 자비나눔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안 선사 가르침 수행지표로"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43주기 추모재 봉행

근세 호남 선맥의 큰 기둥인 해안대종사 43주기 추모재와 역대조사 다례재가 내소사에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3일 해안대종사 열반 43주기를 맞아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도스님들과 전등회 재가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내소사 대웅보전서 봉행된 해안대종사 43주기 추모재서 사중스님들이 해안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모습.

해안문도를 대표해 철산 스님은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어느덧 4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강직했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후학들은 스님의 큰 뜻을 잊지 않고 수승한 가르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주지 진성 스님은 "해마다 잊지 않고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늘 해안 스님의 수행향기가 이어지는 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불교 소통창구, 연합회 공식 출범

4월 5일 창립총회에 이어 기념법회 봉행

전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사부대중 공동체인 전주불교연합회가 출범했다. 전주 각 사암과 신도포교단체를 포함한 사부대중 협의체를 표방하는 전주불교연합회는 4월 5일 전주시 금암동 생명평화센터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는 금선암 덕산 스님, 보문사 혜원 스님, 정혜사 법성 스님, 흥국사 지정종사 등 사찰대표들과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전주 우리는선우 김진철 회장, 안준아 전주룸비니 산악회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라은희 전북교사불자회장, 윤선주 전주불교청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단장, 박성웅 참좋은우리절 사무국장, 유지원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정관을 심의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공동대표에는 덕산 스님을 비롯한 사찰 주지스님과 재가단체장 등 총 12명이 선임됐으며, 이사로는 황방사 지호 스님 등 10명이 선임됐다. 운영위원장은 유지원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전주불교연합회는 "그동안 지역 불교계 차원의 소통과 화합 창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유독 전주지역만 불교관련 소통창구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져 왔다"면서 "전주불교연합회는 지역 사부대중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부처님 법에 가장 적합한 대중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출범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불교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발전과 종교로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2개 사찰·21개 단체 모여
지역불교 현안 해결법 모색
공동대표제로 공의제 실시
소수의견도 정책에 반영키로

금산사 말사 등은 불참의사
연합회 무게감 약화될 수도

전주지역 소재 12개 사찰과 21개 신행·포교·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주불교연합회는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 지역불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에 불교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조사, 지역불교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봉축행사 기획, 지역불자들 연합법회 등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과 불교위상 제고를 위해 활동키로 했다.



4월 5일 열린 전주불교연합회 창립총회서 각 사찰 주지스님과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진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비 보살행을 실천하며, 봉사와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종교편향, 훼불사건 등에 대한 긴밀한 대처에도 나선다. 특히 불법(佛法)을 빙자한 비불교적 행태에 지역불교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공동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협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중공의제를 실시한다. 열린 협의기구를 통해 소수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고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4월 7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전주지역 스님과 신행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지역 불교공동체의 출범을 공표했다.

한편 전주불교연합회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향후 불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갈등과 경쟁의 사회를 중도와 화쟁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발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연합회에 조계종 금산사 말사와 기타 종단 사찰들이 불참의사를 밝혀 무게감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서 열리는 '빛 고운 관등회'

광주불교연합회, 2017 봉축일정 확정

14일 아시아전당서 점등식
등전시·연등행렬·음악회도

광주지역 봉축행사가 4월 14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열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8일 '2017빛고을관등회' 행사 설명회를 갖고 한 달간의 봉축일정을 밝혔다. 먼저 점등식은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서 진행되며, 높이 18m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 모형 한지등(燈)이 세워진다.

본 행사는 4월 29일 오후 5시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렬, 봉축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약 5000여 명의 불교신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각 사찰별 연희단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봉축행사 법요식인 관등법회, 아시아문화전당부터 광주천, 금남로, 충장로로 이어지는 1만개의 행렬등이 장관을 이루는 연등행렬 등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연등행렬에는 각 사찰과 단체에서 만든 전통등과 20여 개의 대형 장엄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천에서 진행되는 전통등전시회도 눈길을 끈다. 전통등 작가를 비롯해 광주지역 신도들이 만든 수십여 개 작품을 전시하는 등전시회는 '천년의 빛, 빛고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4월 14일~5월 8일 열린다. 전시회에는 그동안 버려졌던 광주천이 아름다운 생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많은 신도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봉축행사를 만들기 위해 대중이 노력하고 있다"며 "빛고을관등회가 광주시민과 불자들에게 행복한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봉축행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두 바퀴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소원원생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단) △봉축 그리고 인권 이야기(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맛있는 day(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 등 11개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본 행사가 열리는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는 오전 10시부터 단청, 연꽃등 만들기를 비롯해 광주지역 다양한 불교단체 부스가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매' 개화 잔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지난 4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된 고불매의 개화에 맞춰 '매화에 취하여 봄날을 마시다'라는 주제로 법회와 축원, 헌다, 식목행사, 사찰음식, 판소리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주지 토진 스님은 "고불매는 고불총림의 기품을 똑 닮았다"며 "향후 백양사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을 살리고, 수행환경을 여법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60년 수령의 고불매는 매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진분홍빛 꽃을 피우는 홍매다. 1947년 만암 스님이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백양사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 나무가 고불의 기품을 닮았다 하여 '고불매'라 부르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